

# 담화에 나타나는 문말표현 「ことだ」에 관한 연구\*

- Face행위이론을 중심으로 -

조영호\*\*  
yhcho@deu.ac.kr

남가영\*\*\*  
gayoung0110@hanmail.net

## 〈目次〉

- |                |                   |
|----------------|-------------------|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3.1 「ことだ」의 FTA 완화 |
| 2. 본고의 이론적 배경  | 3.2 「ことだ」의 FTA    |
| 2.1 face 행위이론  | 3.3 「ことだ」의 FS     |
| 3. 문말표현 「ことだ」  | 4. 결론             |

主題語: 형식명사(formal noun (koto)), 문말표현(Sentence Endding (kotoda)), 담화(dicourse), Politeness, Face, FTA(Face-Threatening-Act.), FS(face-saving)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일본어의 문말표현 「ことだ」는 형식명사 「こと」에 조동사「だ」가 접속한 형태로서, 주로 화자의 심적태도인 모달리티를 나타낸다. 또한 문말표현 「ことだ」는 그 문에서 생략되어도 객관적인 의미나 정보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こと」의 실질적인 의미는 사건, 사태, 실정, 사정 등 시간의 추이와 함께 발생하고 존재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동사나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서 각 단어의 의미내용을 나타내며 전달 내용, 사고의 내용, 감정의 내용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권고·명령·금지, 감탄·감동 또는 어떤 현상이나 행위 등을 특정 사태로서 객체화하거나 앞서 말한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표현하는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말표현 「ことだ」가 face행위이론이라는 관점으로 담화 상에서 어떠한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0AA011)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face기능을 나타내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종래의 문 레벨의 한계를 넘어 언어사용과 이를 실증해 주는 실제언어자료(corpus)를 사용하여 문말표현 「ことだ」의 실질적인 담화분석을 하기로 한다.

형식명사 「こと」에 관한 문법범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화상의 face행위이론을 통해 실질적인 담화 레벨에 관해 연구하기로 한다.

문 레벨에 한정되었던 기능상의 의미·용법에 관한 고찰에 그치지 않고, 담화분석과 다양한 이론을 접목하여 다각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회화의 기본구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Austin(1962)과 Searle(1969)의 ‘말화행위이론’(speech act theory), Grice(1967)의 ‘협력의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 Brown and Levinson(1987)의 ‘politeness이론’, 曹(1998)의 ‘Face행위이론’과 같은 담화이론이 성립되었음을 재조명한다.

문말표현 「ことだ」를 曹(1998)의 Face행위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문 레벨의 한계를 넘어 담화 레벨에서 나타나는 face기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2. 본고의 이론적 배경

### 2.1 Face행위이론

Face행위이론의 특징은 Grice(1967)의 ‘협조의 원리’(cooperarive principle)와 Goffman(1967)이 제안한 face<sup>1)</sup>의 개념을 확장하여, ‘담화는 회화참가자의 face행위에 의해 성립한다.’ 라고 설명하였다.

曹(1998)의 접근은 Brown and Levinson(1987)의 negative face와 positive face로 이분하여 설명하는 Politeness이론의 모순점을 보완하고 문 레벨을 넘어서 담화레벨에서 face행위의 설명이 명백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회화참가자는 서로의 face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1) Goffman, Erving, op. cit., pp.15

Face는 문화적인 관계와는 관계없는 보편적인 개념이라 소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face may be defined as the positive social value a person effectively claims for himself by the line others assume he has taken during a particular contact」

(Face는 어느 특정의 접촉에서 타인이 상정하고 있는 라인에 의해 그 자신을 위해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적극적, 사회적인 가치로서 정의된다.)

즉, Face란, ‘체면을 잃다(lose the face)’에서의 ‘체면(face)’과 같은 의미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아상을 말한다.

전체로 회화를 개시하는 것이다. 회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 장면, 문맥에 의해 face의 교환을 조정하면서 담화를 성립해 가는 것이다. face행위이론은 사회적인 관례와 특수성을 포함하기 쉬운 politeness라는 개념을 버리고 face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담화에 적용하는 것이다.

face는 담화 상에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face는 「일반적 face」와 「사회적 face」 「회화참가자 상호작용의 face」로 삼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일반적인 face」는 담화를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회화의 조항이다. 이러한 「일반적 face」는 Grice(1967)가 말한 ‘협조의 원리’(cooperarive principle)에 따르며, 회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일반적 face」가 무너지면, 담화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face」는 회화참가자가 사회적인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의미로, 사회적인 face에 관한 항목이다.

담화의 성립은 올바른 face행위의 인식에서 구성되고 연속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politeness를 고찰해보면, 정중함에 의해 담화 상에서 face행위가 올바르게 행해진다는 것은 FTA(Face Threatening Act, 이하 FTA)<sup>2)</sup>가 존재하지 않을 때, politeness가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담화를 politeness 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politeness는 특정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회화참가자는 자신의 담화 상이나 상호 간의 발화 에서 각자의 face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face를 지키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화참가자가 face에 주의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담화에서 face를 위협하는 행위가 발견된다. 소위, 정중하지 않거나, 무례한 행동이 상대에게 반발을 사기도 하고, 자신의 face에 보상행위를 하기도 한다.

또한, Grice(1975)<sup>3)</sup>의 ‘협조의 원리’(cooperarive principle)는 모든 담화에 나타난다고 기대하고 있다. 회화참가자가 상대에 대해서 정중한가 아닌가 하는 규범이 아닌, 화자가 face의 상호 작용 안에서 FTA의 발생 여부에 착안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즉, FTA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FTA행위가 발생하면, 정중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화자의 의도가 담화에서 독립된 경우에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 문 그 자체가 정중하더라도 담화레벨로서는 독립된 문의 경우, 발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昨日は本当にすみませんでした。」라는 독립된 문의 경우, 문 레벨 혹은 politeness 관점에서

2) FTA - (Face Threatening Act)

FS - (Face Saving)

FN - (Face Neutral)

3) Grice, Paul, 'Logic and conversation'.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entics, Vol.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pp.41-58

분석해 보면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담화레벨에서 이 발화가 정중한 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화자가 어떤 의도로 발화했는지 알 수 없고, 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昨日は本当にすみませんでした。」를 의도된 정중한 발화로 보기 위해서는 화자에 대한 청자의 발화행위를 관찰해야 한다. 즉, 청자가 FTA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정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회화에서 FTA가 발생했는지, FTA를 의도하여 발화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 face나 사회적 face에 의해 face가 유지되고 있거나, FTA가 중화되었기 때문이다. 단, anti-FTA 마커나 redressive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는 화자의 FTA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Brown and Levinson이 politeness 현상으로 고찰해온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스트라테지*는 의도된 경의로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더욱 넓은 범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개념 확장에 의해, 특정의 문 구조에 의한 정중한 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담화 상에서 회화참가자의 face 교환에서 politeness가 유지되는 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즉, politeness라는 현상은 발화자 상호 간의 face 유지와 FTA 중화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다.

문법규칙 개념을 담화범주로 확장하여 그 언어행동을 face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발화가 적절한지 아닌지, 적절하지 않다면, 얼마나 부적절한 지를 기술하기 위한 규칙을 형식화 할 수 있다. 담화에 있어서 정보를 유지하면서 face를 지키는 수단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담화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절함은 face행위에서 파생된 것을 가리킨다. 즉, 담화에 FTA가 존재한다고 예상될 때, 회화참가자가 mitigator나 보상행위의 발화를 하는 것은 face행위에 의해 타당성이나 적절함을 보충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회화참가자는 상호의 face를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회화를 시작한다. 회화 상에서 시간·장소·문맥에 따라 face를 조정해가면서 담화가 구성되고 연결된다. (曹1998) 그러나 담화에 있어서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회화참가자는 상대의 face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항상 face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face를 위협하여 상대의 반응을 재촉하는 담화가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담화에서 화자에 의해 발생한 FTA는 상대의 반응 즉, 발화행위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회화참가자는 통상적으로 특정 집단에 존재하는 표준적인 틀에서 확립된 이미지에 의해 자신의 행위 기준을 사고하고 언어행동을 행한다. 그 때, 발생하는 회화참가자 상호 간에 존재하는 이미지의 차이가 FTA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화 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는 논쟁의 경우, 청자와 화자 간에 손상된 상호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언어행위가 나타난다. 즉, 회화참가자는 face를 조작해서 자신과 상대의 face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회화참가자 간에 발생하는 face 교환은 경우에 따라 청자와 화자의 face를 위협한다. 이른바 FTA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상대와의 의견 불일치가 원인이 된다. 만약, 담화에서 상대를 FTA해야만 하는 경우,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려하고 또는 의문표현에 의한 상대의 face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의해 회화참가자 서로의 face를 유지하여 담화가 성립되는 것이다. Brown and Levinson(1987)은 이러한 FTA를 중화하는 행위를 politeness 스펙트럼이라 하고, Meier(1995)는 수복행위(repair work)라고 하였다.

politeness를 실현하는 것은 청자의 face를 지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politeness가 실현되지 않은 발화는 face를 위협하는 발화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politeness를 생각해보면, politeness는 어떤 특정의 발화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회화참가자가 자신의 발화 상에서 또는 상호 간의 발화 상에서 각각의 face에 주의를 기울이며 face를 지키거나 위협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즉, 회화참가자가 상대의 face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face를 위협하는 발언이 나타나거나, 정중하지 않은 무례한 행위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대에게 반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스스로 보상행위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face의 상호작용을 이론에 도입함으로써 face를 문 레벨을 넘어 담화레벨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face행위이론을 바탕으로 문말표현 「ことだ」에 의한 face기능에 대해서 3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3. 문말표현 「ことだ」에 의한 face행위

#### 3.1. 「ことだ」의 FTA 완화

주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모달리티의 경우에 「ことだ」가 사용되어 FTA를 완화하여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1) (기상악화로 비상사태의 비행기 안, 기장, 부기장과 승무원의 대화)

- 1A : あれ?  
2B : 何だ。  
3A : いや。  
4C : どうした?  
5A : 積乱雲に突っ込みそうです。  
6C : よし分かった。  
7A : あ、ベルトサインお願いします。  
8C : ラジャー  
9D : 座席ベルトをお絞め下さい。  
10A : もうすぐ入ります。  
(うおっ~)  
11A : キャプテン高度が下がってます。  
12C : 慌てるな。姿勢を保てばいい。  
13A : ラジャー高度上げます。  
14C : 業務連絡客室乗務員は決して席から立ち上がらないこと。  
15D : はい、分かりました。  
16C : 大丈夫だ。 (グッドラック : 第 7 話)

상기 담화 (1)은 기상악화로 긴박한 담화가 진행되고 있다. C의 연속되는 FTA에도 A, D의 face행위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C의 FTA를 받아들이고 있다. 14C는 「席から立ち上がるな」라는 명제로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강한 FTA표현을 「席から立ち上がらないこと」를 사용하여 다소 완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말의 「ことだ」는 강요하고 명령하는 표현을 다소 완화하여 표현하는 FTA완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3.2. 「ことだ」의 FTA

- (2) (A : 신입파일럿, D : 캡틴파일럿, B : 담당 비행정비사, C : 상사  
비행정비사의 대화내용 - 무리하게 리체크를 원하는 신입 파일럿의 의뢰에 자존심을 상한 정비사를 염려하는 캡틴 파일럿과 신입 파일럿의 의견이 상이한 상황 )  
1A : こっちだって何百人って命しよって飛んでんだよ。わかんねんだろ。  
その気持、  
2B : 誰よりも分かっているつもりよ。こっちだって、こっちだって命かけて整備やってる

んです。リチェック開始します。フォローお願いします。

3C : 緒川、どうもすみませんでした。

4D : 貴様、あーあー何だか気が重いなあ。

5A : 確かにフライトの時間が遅れたのはお客様には申し訳ないと思いますよ。

6D : そうじゃないよ。あの子だよ。結局何の異常もなかったんだ。彼女のプライドを傷つけてしまってことだよ。

7A : でも、事故より百万倍いいじゃないですか。

8D : 全部お前がいけないんだぞ。かわいそうに。(溜め息をつく)

(グッドラック : 第 1 話)

상기 담화 (2)에서 1A~3C까지 언쟁의 담화가 연속하고 있다. 무리한 리체크 요구에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의심받았다고 느낀 정비사와 안전을 과하게 염려하는 신입 파일럿 간의 FTA교환이 발생하였다. 이에 4D에서 캡틴이 중화시킨 FTA를 하였지만, 5A는 4D의 FTA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상호 의견 불일치하는 담화가 연속되고 있다. 6D에서5A를 책망하며 나무리는 장면으로 사전 발화상황의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심적인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에 「ことだ」를 문말에 사용함으로써 A에 대한 FTA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7A에서는 FTA마커인 「でも」가 사용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의 FTA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담화가 진행되고 있다. 8D에서 다시 FTA에 반발하고 있으며 연속되는 FTA 교환이 일어나는 언쟁의 담화가 진행되고 있다.

### (3)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장면)

1A : お願いします。やっぱり空飛ばせてください。パイロット続けさせてください。  
お願いします。

2B : 君に空を飛ぶ資格があると言えるのか。

3A : はい、今なら言えます。

4B : では、独断でコックピットを出たことについても反省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な?

5A : いえ、いや確かに自分がコックピットを出たことによって乗客に不安を抱かせたことに関しては反省します。でも、俺はその方がジップを守るって判断できたら別にコックピット出てもいいと思います。

6B : パイロットの仕事は操縦桿を守ることだ。

7A : いやパイロットの仕事は命を守ることです。マニュアルとカルールっていうのもも

ちろん大事だと思いますけど、飛行機って色んな人が乗って色んなところにいくわけじゃないですか？

~中略~

それが本当に空を飛ぶ人間の責任っていうか。資格だとおもいます。

8B : 君への退職勧告を役員会に申請したら却下された。仕方あるまい。

パイロットの養成には膨大な金がかかっている。元を取るまでは働いてもらわないと困るということだ。乗務復帰は火曜の香港便だ。

9A : はい。

10B : 言っとくが、私は君の意見を認めたわけではない。

君はまだまだ不安全なパイロットだ。思い上がるな。

11A :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グッドラック : 第 2 話)

상기 담화 (3)은 부기장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기장에게 부탁하는 장면으로 상하관계리는 입장아래에서도 face의 교환이 나타나고 있다. 5A에서 상대의 FTA에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anti-FTA마커인 「いえ」「いや」「でも」 등의 あいづち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A와 B의 의견 불일치로 상호 FTA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6B에서 「パイロットの仕事は操縦桿を守る」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ことだ」가 문말에 후속함으로서 화자가 상대에게 권고하는 뉘앙스의 모달리티를 나타냄으로서 B를 FTA하는 것이다. 6B의 FTA를 받아들이지 않고, 7A에서는 anti-FTA마커인 「いや」를 서두에 사용함으로서 A의 FTA에 반발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또한 「パイロットの仕事は命を守る」라는 상대의 의견과 상이한 발화내용을 서술하면서 「ことだ」를 문말에 후속하여 상대에게 FTA를 나타내고 있다. 연속되는 상호의 FTA로 인해 긴장상태의 담화가 진행되었지만, 8B에서 A의 복귀조치를 알림으로서 9A에서는 face가 saving 되고 있으며, 10B의 FTA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11A에서는 FTA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face의 보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9A, 11A와 같은 face를 보상하려는 발화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담화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Culpeper(1996)이 주장하는 impoliteness strategy 의 맥락으로서 청자와 화자사이에 발생 할 수 있는 의견의 부조화에서 기인하고 대화자의 face를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face행위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즉, 담화는 항상 face의 교환에 의해 회화참가자 상호 face를 유지하거나 FTA를 중화하기 때문에 Culpeper(1996)가 주장하는 impoliteness행위 도 face교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담화 중의 face는 문말표현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face행위이론에 의해 그 담화

상의 기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face가 위협받는 담화는 경찰조사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 3.3. 「ことだ」의 FS

#### (4)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

1A : さっき関空が雷雲に襲われてると言ったな。

2B : はい。

3A : 霧は雷雲に吹き飛ばされて必ず一度雲の切れ間をみせる。南関に発生した雷雲が成田に迫るのは現在の気流からみておよそ2~3時間後、千歳で ~中略~ ギリギリまで粘るにはまず判断力が必要ということだ。返事は?

4B : はい、あ、ラジャー オペレーションコントロールセンター  
~中略~

(グッドラック : 第 6 話)

상기 담화 상에서 문말의 「ことだ」는 사전의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하나의 사태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때, 「ことだ」는 상대의 face를 saving하는 기능을 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으로 FTA는 발생하지 않았다. 2B, 4B의 「はい」는 직접적으로 상대의 face를 보상하는 발화이다.

#### (5) (회사동료의 대화)

1A : それほどのことじゃないけど新人の頃ね、  
お客様にお尻を触られたことがあるの。

2B : お尻?

3A : でね、" やめてください " って言ったら、  
" ウェイトレスのくせに気取りやがって " っていわれたの。

4B : それで?

5A : えー? それであったま来て " ウェイトレスだってお尻は触らせません "  
" お客様どんな店行ってるんですか! " て怒鳴っちゃた。  
うーん、今はもうそんなことのないけどね。

6B : もう怒鳴ったりしないでしょ。

7A : んーそうじゃなくて、触られたりもしなくなったってこと。

8B : ああ

9A : ああって?

10B : いやいや あ、、

(グッドラック : 第 2 話)

상기 예문 (5)의 담화는 「~ということだ」의 형태로서 문말에 위치하여 상대의 face를 saving 하고 있다. 1A~5A 까지 예전의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호의 face의 교환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6B에서 상대의 발화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FTA가 나타났지만, 7A에서 처음에 상대의 FTA에 「んーそうじゃなくて」를 사용하여 반발하였지만, 「触られたりもしなくなっただってこと」의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의 사태로 다시 정리하여 상대의 face를 saving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8B에서 「ああ」와 같은 non-lexical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face를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Face행위이론의 시점으로 문말에서 화자의 주관을 표현하는 모달리티 기능을 하는 「ことだ」는 담화레벨에서 명령과 같은 강한 FTA의 행위를 완회시키는 작용, FTA, FS의 기능이 나타남을 담화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상대의 의견이 불충분함(insufficiency)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의 face를 위협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화자가 어떤 사태에 대해서 상대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 또한 FTA에 반발하는 anti-FTA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문말표현 「ことだ」는 담화 상에서 항상 상대의 face를 위협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face를 위협하지 않고 상대의 face를 saving하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로, 「ことだ」가 문말에 사용되어, 선행문맥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하나의 사태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때, 「ことだ」는 상대의 face를 saving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단순히 정보전달의 경우, FTA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ことだ」를 담화레벨로 분석하여 청자와 화자 간의 담화에 대한 의미관계를 face행위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얻어진 것이다. 또한 그 기능이나 의미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face행위이론이라는 담화분석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4. 결론

본고에서 제시한 face행위이론 상에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말표현 「ことだ」를 face행위이론을 통해 담화 상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종래의 어용론에서 다루었던 face개념을 담화에 적용하여 문법범주의 연구를 확장하여 담화 레벨로서 문말표현 「ことだ」를 분석하였다.

face행위이론은 종래의 발화이론과는 달리, 문 레벨에서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었던 face의 기능을 담화분석함으로서, 연구의 틀을 확장하였다.

담화는 회화참가자 간의 상호 face교환에 의해 성립된다. 또한 그러한 보편적인 개념의 face행위를 바탕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담화가 성립됨과 동시에 담화의 목적, 계획에 의해 face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화자의 모달리티를 표현하는 문말표현 「ことだ」는 담화 상에서 상대에게 주로 권고나 명령의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FTA를 완화하거나 또는 상대의 face를 직접으로 위협하는 FTA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의 FTA는 상대에게 반발하거나 상대의 face를 위협하는 발화를 해야만 하는 경우, FTA를 더욱 강화하여 발화하는 기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ことだ」를 담화레벨로 분석하여 청자와 화자 간 담화에 대한 의미관계를 face행위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얻어진 것이다.

향후 문법범주에 국한된 제연구들도 문 레벨의 한계를 넘어서 그 기능이나 의미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face행위이론과 같은 담화분석의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종래의 형식명사의 의미·용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능적 의미를 대상으로 한 문법범주의 연구에 한정되었지만, 본고에서는 문 레벨의 연구를 담화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face라는 보편적 개념을 도입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문말표현 「ことだ」가 가지는 다양한 face기능을 corpus를 통해 확인하였다. 문 레벨에서의 기능과 의미·용법에 관한 연구를 기초하여 그 밖의 다양한 형식명사들을 대상으로 face행위이론을 통해 담화 분석하는 것을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參考文獻】

- グループジャマイシ(1998) 『教師と学習者ための日本語文型辞書』くろしお出版  
常石希望(1996) 「こと、もの、の」의 基本構造 研究 『檀國大學校論文集』第30輯  
寺村秀夫(1981) 『日本語の文法(下)』国立国語研究所  
西野容子(1993) 「談話分析について - ディスコースマーカ―を中心として - 」 『日本語学』  
備前 徹(1989) 「「ことだ」の名詞述語文に関する一考察」 『滋賀大学教育学部紀要人文科学』社会科学・教育科学, No. 39  
松下大三郎(1984) 『改選標準日本口語法』勉誠社  
三上章(1997) 『現代日本語序説シンタクスの試み』くろしお出版  
曹永湖(1996) 「談話における「でも」の機能について」 『文化』第59巻 第34号, 東北大学文学会「談話マー

カー「だって」の用法と機能について』『東北大学言語学論集』第6号、東北大学言語学研究会。  
「談話マ-カ-「でも」のFace-Threatening Act機能 - Face行為理論によるアプローチ』『東義論集30』  
1999

- Brown, Penelope. and Stephen Levinson(1978),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Goody, ed., *Question pol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Roger and Albert Gilman(1989), Politeness theory and Shakespeare's four major tragedies. *Language in society* 18
- Coulthard, Malcom, Martin Montgomery and David Brazil(1981). Developing a description of spoken discourse. In : Malcom Coulthard and Martin Montgomery, eds. *Studies in discourse analysis*. Lond on: Routledge
- Culpeper, Jonathan(1996), Toward an anatomy of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5
- Fraser, Bruce(1990), Perspectives on 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14
- Fraser, Bruce and William Nolen(1981), The association of deference with linguistic form.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27
- Garcia, Carmen(1989), Apologizing in English: Politeness strategies used by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Multilingua* 8(1)
- Goffman, Erving(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ew York: Doubleday
- Grice, Paul(1967), *Logic and conversation*, Unpublished MS. of the William James Lectures, Harvard University
- Hancher, Michael(1979), The classification of cooperative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8(1)
- Hayash Takuo(1996), Politeness in conflict management: A conversation analysis of dispreferred message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Pragmatics* 25
- Levinson, Stephan C(1983), *Pragmatic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nney, Richard W. and Horst Arndt(1992), Intracultural tact versus intercultural tact. In: R. J. Watts, S. Ide and K. Ehlich, eds., *Politeness in language*. Berlin: Mouton

## 【자료출전】

(グッドラック : 第 1~10 話)、井上由美子、TBS

(紅の豚) 宮崎駿、アニメーション

(あ、春) 中島才博、シナリオ作家協会(編) 『99 年鑑代表シナリオ集』、映人社

(皆月) 荒井晴彦、シナリオ作家協会(編) 『99 年鑑代表シナリオ集』、映人社

(刑法第三十九条)、大森寿美男、シナリオ作家協会(編) 『99 年鑑代表シナリオ集』、映人社

(NANA - ナナ - 21)、矢沢あい、集英社

---

논문투고일 : 2012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4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4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4월 20일

---

〈要旨〉

담화에 나타나는 문말표현 「ことだ」에 관한 연구

- Face행위이론을 중심으로 -

형식명사 「こと」에서 파생한 문말표현 「ことだ」의 의미·기능을 바탕으로 담회에서 나타나는 face행위에 대해 고찰하였다. 형식명사가 문말에 위치할 경우, 조동사 「だ」와 결합하여 그 의미·용법이 특수화되어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모달리티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문말표현의 특징으로는 「ことだ」가 그 문장에서 생략되어도 문 의 객관적인 의미나 정보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형식명사의 단순한 단어 자체의 의미 파악은 무의미하며 문 중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그 구분이 가능하다. 화자의 발화시,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모달리티 표현을 중심으로 형식명사 「こと」의 의미·기능의 변화를 거쳐 일정한 형식으로 고정화된 형식명사 「こと」의 또 다른 카테고리로서의 「ことだ」가 담화 상에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 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face행위이론을 바탕으로 실제언어자료(corpus)통해 담화분석 하였다.

화자의 모달리티를 표현하는 문말표현 「ことだ」는 담화 상에서 상대에게 주로 권고나 명령의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여, FTA를 완화하거나 또는 상대의 face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FTA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의 FTA는 상대에게 반발하거나 상대의 face를 위협하는 발화를 해야만 하는 경우, FTA를 더욱 강화하여 발화하는 기능이 나타났다. 문 레벨의 한계를 넘어서, 그 기능이나 의미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face행위이론과 같은 담화분석의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종래의 형식명사의 의미·용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능적 의미를 대상으로 한 문법범주의 연구에 한정되었지만, face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담화분석 함으로서, 담화 상에서 face행위이론을 통해 문말표현 「ことだ」가 가지는 다양한 face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Study on the Meaning Sentence Endding 「kotoda」in Discourse」

- Focusing on Face Act -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expressions at the end of sentences 「kotoda」 derived from the formal nouns 「koto」 were also analyzed along with researching their modality. When a formal noun is placed at the end of sentence, its meanings and usage become specialized as it combines with an auxiliary 「-da」 and contains a modality meaning that express a subjective attitude of speaker. One of the features of the expressions is that an objective meaning or the amount of information is not affected when the words 「kotoda」 are removed from the sentence.

Using this point, a general social or cultural standard can be avoided when researching politeness. The politeness phenomena have to be analyzed based on the mutual reactions of face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conversation.

The expression at the end of sentences 「kotoda」 which expresses a speaker's modality has an FTA function that avoids aggressive expressions such as orders or warnings or directly threatens the other's face. The FTA in this case can be reinforced even more when a speaker has to resist to the other or threaten the conversation partner. The expression at the end of sentences 「monoda」 shows the modality that expresses a speaker's subjective attitude. When talkers do not agree on some opinions at a level of conversation, it frequently threatened the partner's face as it shows a speaker's uncomfortable attitude. When a speaker shows a pity toward the partner, an anti-FTA function occurs for the partner.

In order to make clear the functions and meanings beyond the limits of a level of sentence, a structural approach to analysis of conversations such as face behavior theory will be needed. The previous researches for the meaning and usage of formal nouns were limited to the grammar such as finding out their functional meanings. However, in this study, a new concept of 'face' was applied to analyze conversations and the various face functions of the expressions at the end of sentences 「kotoda」「monoda」「noda」 were researched through face behavior theory in conversations.